

女大生の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 1. 緒 論
- 2. 資 料
- Ⅷ 3. 人口增加와 子女數
- 目 4. 希望結婚年齡
- 5. 希望子女數
- 6. 두 子女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 次 7. 希望 出產終結 時期
- Ⅴ 8. 避妊方法의 知識
- 9.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 10. 要約 및 結論

1. 緒 論

女性이 婚前期에 갖는 經驗은 이들의 장래 出産力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6.25動亂 後에 있던 Baby boom 世代가 1970年代에 可妊期에 들어오으로써 可妊婦 人數의 數의 肥大와 出産潜在力을 현저히 增加시킬 수 있기 때문에 婚前期 女性의 人口 및 子女觀은 장래 人口變動 豫測의 주요 資料가 된다.

婚前期 女性의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研究는 姜¹⁾에 의하여 中·高等學校 學生을 대상으로 한 家族計劃 및 性에 대한 調査, 그리고 李²⁾ 등에 의한 男·女大學生의 家族計劃 態度에 관한 調査研究가 있다.

全國 標本家口內에 거주하는 18~27歲 未婚女性에 대한 家族計劃 및 子女觀에 관한 調査는 宋³⁾ 등에 의해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1973년에 실시되었다.

美國에서 1971년에 전국을 대표하는 標本을 추출하여 15~19세 女性을 대상으로 婚前性交, 避妊 및 妊娠에 관한 調査가 Zelnik⁴⁾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14~24세 젊은 이를 대상으로 家族計劃과 人口成長에 관한 調査가 Silver⁵⁾ 등에 의해 1971년에 실시된 바 있다.

과거에 人口 및 家族計劃의 關心이 有配偶婦人에 치중되어 소위 KAP 및 出産力 調査역시 이들 婦人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關心은 未婚女性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 人口政策은 未婚女性을 고려하지 않고 合理的으로 수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本稿는 婚前期 女性 중 장래 一般女性의 出産力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女大生을 대상으로 人口問題에 대한 態度, 結婚觀, 子女觀, 家族計劃 등에 대한 態度의 調査結果를 分析제시한 것이다.

* 本研究院 研究 2課長

- 1) 姜駿相, 韓國學生의 家族計劃과 性에 對한 實態調査 報告書(抄錄), 1970年 家族計劃年報,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1, pp. 122-129.
- 2) 李效再, 李東瑗, 男·女大學生의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돌 낳기 운동에 대한 受容度의 分析, 韓國文化研究院論叢, 제23집, 1974, pp. 395, 434.
- 3) 宋建鏞·金明姬, 未婚女性의 子女觀 家族計劃 知識 및 態度 調査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 4) Zelnik, Melvin and Kantner, John F., Sexuality, Contraception and Pregnancy among Young Unwed Fe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Population Growth and the Future, Research Report, Vol. I, pp. 357-374.
- 5) Morton Silver, Richard Pomeory and Judith Burbank, National Youth Survey, Planned Parenthood-World Population, (Mimeo).

女大生은 卒業後 社會에서 女性을 지도할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간의 正規教育에도 불구하고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하여 體系적으로 教育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人口問題에 대한 認識은 최근에 높아졌고, 學校內 人口教育 역시 日淺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 有配偶婦人(15~44세)중 大學教育을 받은 婦人은 1973년에 4.7%(都市 8.6%, 농촌 1.3%)로서 아직 적은 比率을 차지하지만 1965년의 比率인 1.3%(都市 3.4%, 농촌 0.8%)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比率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情況下에서 本稿은 女大生 자신이 갖고 있는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및 知識을 분석하여 女大生 人口教育의 方向 및 內容設定에,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家族計劃研究院이 제공하고 있는 女大生을 위한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 program의 內容 改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資 料

本 研究院은 1974年 6月부터 서울市內 全大學 또는 大學校에 在學중인 女大生을 위한 1日課程의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을 실시하였다. 이 課程에는 家族計劃概要, 人口 및 家族計劃 映畫上映, 教育展示室 觀覽, 綜合討議 등이 포함된다.

이 課程에 참여하기 위해 女大生은 정해진 날에 本 研究院을 집단으로 방문하였다.

1974年 9月 ~11月 기간에 이 課程에 참여하기 위해 本 研究院을 來訪한 女大生數는 2,790名 이었고, 이들의 大部分은 卒業班 學生이었다. 이 課程을 제공할 1次的 對象은 卒業班 學生에 두었다.

本 研究資料는 이 課程에 참여하기 위하여 來院한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調查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調查는 이 課程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되었고 自計式方法에 의하였다. 각자에게 既作成된 調查票가 배부되었고, 동시에 記入要領을 소개하여 스스로 作成함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調查票는 自計式 方法에 적절토록 설계되었다. 調查票는 8切紙 單面에 23개의 項目으로된 選擇型 質問紙로서, 형태는 간단하고 작성에 5分內外가 소요되었다.

이 研究를 위해 1,000枚의 調查票가 各者에게 배부되었고, 이들 중 不確實한 記入, 누락, 調查不能 등을 제외한 977枚가 分析에 이용되었다. 배부된 調查票에 대한 應答率(이용가능한 조사표 수집 枚數)은 98%로서 높았다.

表 1은 應答者의 諸特性을 年齡, 專攻分野, 男女共學 與否, 最長居住地, 兄弟姊妹數 및 出生順位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應答者의 49%는 21歲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2歲의 33%였다. 本 研究院이 제공한 1日課程教育의 1次的 對象은 卒業班이었기 때문에 21歲 이상의 比率이 높았다. 學年別로 보면, 4學年이 86%, 3학년이 8%, 2학년 이하가 6%였다.

專攻分野別로 보면 社會科學系列이 51%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自然科學系列로서 31%, 藝能系列이 17%였다.

男女共學 형태를 보면, 女子大學 在學生이 전체의 80%였고, 男女共學인 大學의 재학생은 20%였다.

應答者의 人口學의 背景 중 현재까지의 最長居住地를 보면, 서울이 66%로서 가장 높고, 기타 都市는 28%, 농촌은 5%였다. 조사대상은 서울市內 女大生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최장거주지 역시 서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6) 宋建鏞·韓聖鉉,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p.22.

Table 1.

Percent of Respondents by Characteristics, 1974

| Characteristics | Number | Percent |
|-----------------------------------|--------|---------|
| <u>Age</u> | | |
| -20 | 117 | 12% |
| 21 | 481 | 49 |
| 22 | 326 | 33 |
| 23+ | 48 | 5 |
| No answer | 5 | 1 |
| All ages | 977 | 100 |
| <u>Major field</u> | | |
| Social science | 501 | 51 |
| Art | 169 | 17 |
| Natural science | 298 | 31 |
| No answer | 9 | 1 |
| <u>Type of college</u> | | |
| Women's college | 785 | 80 |
| Co-educational college | 192 | 20 |
| <u>Longest residence</u> | | |
| Seoul | 646 | 66 |
| Other cities | 278 | 28 |
| Rural | 47 | 5 |
| Other | 6 | 1 |
| <u>Number of siblings</u> | | |
| 1-2 | 54 | 6 |
| 3 | 124 | 13 |
| 4 | 247 | 25 |
| 5 | 255 | 26 |
| 6 | 184 | 19 |
| 7+ | 113 | 11 |
| <u>Birth order among siblings</u> | | |
| Only child | 18 | 2 |
| First born | 261 | 27 |
| Middle | 516 | 53 |
| Last | 166 | 17 |
| No answer | 16 | 1 |

應答者의 兄弟姊妹數 分布를 보면, 5名이상이 56%였고, 1~3명은 19%에 불과하다. 형제자매수 평균은 4.8名으로서 1973년 40~44歲 有配偶婦人⁷⁾의 平均 出生兒數 5.2名보다 약간 적고 平均 生存兒數 4.5名보다 약간 많지만, 女大生의 大部分은 多出産의 環境에서 成長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7) 宋建鏞·韓聖鉉, 前掲書, p. 225.

兄弟姊妹 중 順位를 보면, 無男獨女가 2%로서 가장 낮고, 중간이 5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형제자매수가 4명 이상의 比率이 81%였기 때문에 형제중 順位 중간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3. 人口增加와 子女數

人口問題에 대한 態度를 넓게는 國家的 측면에서 본 人口增加와 家庭이란 울타리 내에서 본 子女數란 두 概念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態度를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發展과 人口와의 關係에 있어 앞으로 현재의 人口增加率(2%)은?”이란 질문에 대하여 女大生の 절대다수인 94%는 “현재보다 人口증가율은 낮아져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表 2 參照).

Table 2. Attitudes toward Population Increase and Family Size by Age, 1974

| | Age | | | | |
|---|-------|-------|-------|------|----------|
| | -20 | 21 | 22 | 23+ | All ages |
| <u>Population increase</u> | | | | | |
| Considering national development, current population increase rate (2 percent): | | | | | |
| 1) should increase | 1% | 1% | — | — | * |
| 2) is optimum now | 5 | 4 | 3% | 8% | 4% |
| 3) should decrease | 91 | 92 | 95 | 88 | 94 |
| 4) has no relation to development | 1 | * | * | 2 | 1 |
| 5) Don't know | 2 | 2 | 2 | 2 | 1 |
| Total | 100 | 100 | 100 | 100 | 100 |
| (N) | (117) | (481) | (326) | (48) | (972)** |
| <u>Family size</u> | | | | | |
| Considering improvement of family living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 | | | | |
| 1) should be many more | 1% | 1% | — | — | 1% |
| 2) should be few more | 92 | 95 | 95 | 94 | 95 |
| 3) has no relation to living level of family | 6 | 3 | 4 | 4 | 4 |
| 4) Don't know | 1 | 1 | 1 | 2 | * |
| Total | 100 | 100 | 100 | 100 | 100 |
| (N) | (117) | (481) | (326) | (48) | (972)** |

* = Less than 1 percent.

— = No respondents in this category.

** = Excludes 5 cases because of incomplete information.

현재의 급격한 人口增加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認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재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한 비율은 4%, “인구증가와 국가발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비율은 1%였다.

人口增加에 대한 態度는 女大生の 年齡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인구증가율이 적당하다 또는 국가발전과 관계없다 라고 생각한 비율은 23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10%였고 20세 이하에서 7%, 21세에서 5%, 22세에서 가장 낮은 3%였다.

전체적으로 應答者の 年齡에 따라 「人口增加의 問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比率은 3%~10%의 범위로 적은 差를 나타내고 있고, 각 年齡에 걸쳐 女大生の 大多數는 급격한 人口增加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가정의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자녀수는?»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の 95%가 “자녀수는 적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자녀규모는 적어야 有利하다는 인식의 대단히 높다. 다만 극히, 적은 比率이지만, “자녀수는 많아야 한다”가 1%, “가정의 생활수준과 자녀수와는 관계가 없다”가 4%였다. 女大生の 절대다수는 家庭의 生活水準 向上을 위해 자녀수는 적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年齡別로 「子女數는 적어야 한다」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세 이하에서 이 비율이 92% 인데 비하여 21세 이상에서 95%였다. 그러나, 그 범위는 92~95%에 있고, 年齡別로 큰 차이 없이 모든 女大生이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生活水準과 子女數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人口에 관한 두 問題에 대하여 女大生の 대다수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態度는 높은 教育에 의한 合理的 思考方式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希望結婚年齡

女大生이 희망하는 結婚年齡 중 25세가 가장 높은 31%였고, 다음은 24세에서 22%였다. 大學을 나온후 2~3년 기간에 53%의 女大生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表 3 參照).

그러나 全應答者の 3%는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結婚觀인 universal marriage (1966년 35~39세 女性의 未婚率 0.7%)를 탈피하려는 한 징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西歐의 높은 未婚率(Sweden, 1950년 35~39세 女性 중 未婚率 14.4%)에 비하여 女大生の 結婚觀은 아직도 전통적 universal marriage에 크게 영향 받고 있다.

3. Desired Age at Marriage among Unmarried Women College Students by Age, 1974

| Current age | Desired age at marriage | | | | | Total(N) | Mean |
|-------------|-------------------------|-----|-----|-----|-----|------------|------|
| | -22 | 23 | 24 | 25 | 26+ | | |
| -20 | 5% | 23% | 29% | 33% | 10% | 100(108) | 24.3 |
| 21 | 4 | 25 | 32 | 25 | 14 | 100(461) | 24.3 |
| 22 | * | 12 | 33 | 38 | 17 | 100(312) | 24.6 |
| 23+ | — | 6 | 30 | 32 | 32 | 100(44) | 25.1 |
| All ages | 3 | 19 | 22 | 31 | 15 | 100(925)** | 24.5 |

* = Less than 1 percent.

— = No respondents in this category.

** = Excludes 28 respondents who did not want to marry and 24 cas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希望結婚年齡은 女大生の 現年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 연령 20세 이하에서 希望結婚年齡 24세 이하의 比率은 57%였고, 연령증가에 따라 이 比率은 감소한다. 그러나 希望結婚年齡 25세 이상의 比率은 20세 이하에서 43%였고, 22세에서 54%, 23세 이상에서 64%였다.

이러한 希望結婚年齡別 分布의 차이는 現年齡別 平均希望結婚年齡에 反映된다. 現年齡 20세 이하 女大生の 平均 희망결혼연령은 24.3세, 22세에서 24.6세, 23세 이상에서 25.1세였다. 전체 女大生の 平均 희망결혼연령은 24.5세였다.

그러나 女大生の 卒業時 年齡이 22~23세이므로, 졸업후 대부분 女大生이 희망하는 결혼연령은 25세가 될 것이다.

1973년에 家口內 거주하는 18~27歲 未婚女性을 대상으로한 표본조사에서 이들의 희망결혼연령은 평균 24.4세였고, 高等学校 이상 졸업자의 희망결혼 연령은 24.5세였다⁸⁾.

그러므로 女大生을 대상으로한 1974年 調查值와 1973년에 家口內 거주 未婚女性 中 高等学校 이상의 學校교육을 받은 未婚女性의 희망결혼연령은 일치한다.

1970~73년 기간의 15~44세 有配偶婦人을 대상으로 한 調查에서 平均 初婚年齡은 22.8세였고, 大學교육을 받은 女性의 1970~73년 기간의 結婚연령 평균은 24.3세였다⁹⁾. 그러므로 女大生의 희망결혼 연령과 실제결혼 연령간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結婚연령이 지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희망과 실제 結婚연령 간 차이가 적고, 都市地域 거주자 또는 높은 教育을 받은 女性의 結婚연령은 1965년 이후 固定되어 왔기 때문이다.

5. 希望子女數

女大生이 결혼후에 갖기를 원하는 子女數는 平均 2.3명이다. 이 希望子女規模는 李¹⁰⁾ 등이 1973년에 調查한 女大生의 希望子女數 2.5명과 1973년에 조사된 一般未婚女性의 希望子女數 2.6명¹¹⁾보다 적은 것이다.

1973년에 全國 有配偶婦人(15~44歲)을 대상으로한 調查에서, 大學以上の 教育을 받은 婦人의 期待子女數(現存子女數와 앞으로 갖기를 원하는 追加希望子女數를 합한 子女數)는 2.7명이었다¹²⁾.

女大生의 希望子女數는 大學이상 教育을 받은 現 有配偶婦人보다 약간 적다. 특히 本調查에서 얻은 希望子女數 2.3명과 婦人의 期待子女數 2.7명 間에는 0.4명의 차이가 있어 女大生의 希望子女數가 결혼후 실현될 수 있다면, 大學以上 婦人의 出産力은 앞으로 좀 더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齡이 적을수록 平均 希望子女數가 약간 많다. 20세 이하의 平均 希望子女數는 2.4명이며, 23세 이상에서 2.2명으로서 이들간 0.2명의 차이가 있다.

希望子女數 2명이하의 比率은 전체에서 72%, 20세 이하에서 57%, 23세 이상에서 75%로서 역시 연령별로 약간의 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希望子女數의 年齡別 차이는 크지 않고, 대부분 女大生의 希望子女規模는 적은 것이다.

希望子女數를 性別로 區別한 應答者의 平均 希望男兒數는 1.3명이었다. 1973년 15~24歲 有配偶婦人의 平均 希望男兒數 1.8명보다 女大生의 希望男兒數는 적다. 높은 教育수준은 希望男兒數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 같다.

8) 宋建鏞·金明姬, 前掲書, p. 16.

9) 宋建鏞·韓聖鉉, 前掲書, p. 223.

10) 李敎再·李東煥, 前掲書, p. 414.

11) 宋建鏞·金明姬, 前掲書, p. 21.

12) 宋建鏞·韓聖鉉, 前掲書, p. 78.

Table 4. Preferred Number of Children for Unmarried Women College Students by Age, 1974

| | Current age | | | | All ages |
|--|-------------|-------|-------|------|----------|
| | -20 | 21 | 22 | 23+ | |
| <u>Preferred number of children</u> | | | | | |
| None | 3% | 2% | 2% | 4% | 2% |
| 1 | 5 | 6 | 7 | 4 | 6 |
| 2 | 49 | 66 | 66 | 67 | 64 |
| 3 | 32 | 19 | 19 | 18 | 21 |
| 4+ | 11 | 7 | 6 | 7 | 7 |
| Total | 100 | 100 | 100 | 100 | 100 |
| (N) | (111) | (467) | (316) | (45) | (939)** |
| Mean | 2.43 | 2.26 | 2.22 | 2.18 | 2.26 |
| <u>Preferred number of sons with sex preference</u> | | | | | |
| None | 5 | 3 | 3 | 6 | 3 |
| 1 | 55 | 68 | 68 | 60 | 66 |
| 2+ | 40 | 29 | 29 | 34 | 31 |
| Total | 100 | 100 | 100 | 100 | 100 |
| (N) | (86) | (353) | (238) | (35) | (712) |
| Mean | 1.37 | 1.28 | 1.26 | 1.29 | 1.28 |
| <u>Preferred number of children without sex preference</u> | | | | | |
| None | 10 | 6 | 6 | * | 7 |
| 1 | 21 | 19 | 19 | * | 19 |
| 2 | 55 | 60 | 64 | * | 61 |
| 3+ | 14 | 15 | 11 | * | 13 |
| Total | 100 | 100 | 100 | 100 | 100 |
| (N) | (25) | (114) | (78) | (10) | (227) |
| Mean | 1.72 | 1.88 | 1.82 | * | 1.82 |

* = Not calculated because of less than 20 cases in base.

** = Excludes 28 respondents who did not want to marry and 100 cas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전체적으로 1명 또는 그 이하의 男兒를 희망하는 女大生の 比率은 69%였고, 2명 이상을 원하는 比率은 31%였다. 연령별로 나이가 적은 大學生에서 약간 많은 男兒數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차는 대단히 적다. 각 연령별로 1.4~1.3명의 男兒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子女數를 희망하는데 있어 男女區別없이 希望한 女大生은 전체의 24%였고, 이들은 希望子女數를 性別로 구분한 경우보다 훨씬 적은 子女規模를 희망하고 있다. 전체 希望子女數 平均은 1.8명이며, 年齡別 差異도 적다.

이와같이 女大生の 希望子女 規模는 적고, 이러한 子女規模가 現實化된다면 이들 自身の 出産力은 물론 이들이 女性的 지도적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一般婦人의 出産力 低下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女大生은 多出産의 不利益을 인식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강한 男兒選好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결혼후 이들에게 希望子女規模를 실현시킴에 요구되는 피임지식의 제공과 家族으로 부터의 高出産力의 壓力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壓力은 앞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완강하다.

女大生の 希望子女數는 비교적 적고, 또한 希望男兒數와 性別區別없는 子女希望이란 見地에서 男兒選好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特別히 男兒選好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첫 아기의 希望性別」과 希望子女를 가진 후 「아들이 없는 경우의 出産態度」를 질문하였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大生の 47%는 첫 아기로써 男兒를 원하였고, 12%는 女兒, 38%는

Table 5. Percent of Women College Students having Preferred Sex of First Baby, 1974

| | Total (N.) | Preferred sex of first baby | | | |
|---------------------------|------------|-----------------------------|------|-------------------|-----------|
| | | Boy | Girl | No sex preference | No answer |
| <u>Age</u> | | | | | |
| -20 | 100(177) | 38% | 15% | 42% | 5% |
| 21 | 100(481) | 47 | 12 | 38 | 3 |
| 22 | 100(326) | 47 | 11 | 38 | 4 |
| 23+ | 100(48) | 54 | 13 | 31 | 2 |
| No answer | 100(5) | * | * | * | * |
| All ages | 100(977) | 47 | 12 | 38 | 3 |
| <u>Number of siblings</u> | | | | | |
| 1-2 | 100(54) | 43 | 6 | 44 | 7 |
| 3 | 100(124) | 41 | 18 | 38 | 3 |
| 4 | 100(247) | 44 | 11 | 42 | 3 |
| 5 | 100(255) | 47 | 11 | 40 | 2 |
| 6 | 100(184) | 50 | 13 | 33 | 4 |
| 7+ | 100(113) | 55 | 11 | 31 | 3 |

* = Less than 1 percent.

는 性別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973년에 조사된 一般 未婚女性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첫 아기가 男兒이기를 원하는 比率이 55%¹⁴⁾인 것과 비교하여 女大生の 이 比率은 낮다. 첫 아기의 性別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比率은 一般 未婚女性에서 27%로서 이 比率 역시 女大生에서 높다.

女大生은 一般 未婚女性보다 希望하는 子女規模가 적기 때문에 첫 아기의 性 特別히 男兒選好가 강할 수 있으나, 오히려 女大生에서 약했다.

첫 아기가 男兒이길 바라는 女大生の 比率은 年齡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兄弟姉妹數가 많아질수록 약간 높아진다.

女大生の 年齡 20세 이하에서 첫 아기가 男兒이기를 바라는 比率은 38%였고, 22세에서 54%였다. 형제자매수 3인 이하에서 그 比率은 42%였고, 7인 이상에서 55%였다. 이러한 차이는 大學이란 같은 환경에 있으나 男兒選好는 나이가 적은 女性에서 더욱 약하고 이들이 사는 家庭內

14) 宋建鏞·金明姬, 前掲書, p. 27.

에서 형제자매 특히 男子兄弟數가 많은 집안에서 男兒의 가치가 더욱 높게 여겨지는데서 생기는 것 같다.

한편 “만약 희망하는 子女數를 가졌으나 아들이 없을 경우 아들을 얻기 위하여 자녀를 더 낳는 것이 좋겠습니까?”란 質問에 대하여 59%는 「아니오」라고 희망자녀수를 가진 후 아들이 하나도 없어도 出産을 中斷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을 얻기 위해 出産한다는 女性은 3%에 불과했다. 그 때 「형편보아서」라는 中立的 位置에 있는 女性은 33%였다(表 6 參照).

1973년에 조사된 一般 未婚女性들은 이 경우 59%는 出産 中斷을 바라고 있고, 20%는 아들을 갖기 위하여, 10%는 性別 區別없이 더 갖기 위해 出産하기를 원한다.¹⁵⁾ 즉 30%는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아들이 하나도 없다면 계속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973년 15~44세 有配 偶婦人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 이런 경우 出産을 中斷하겠다는 婦人은 27%였고, 15~24세의 젊은 婦人에서는 36%¹⁶⁾였다.

이러한 一般 未婚女性과 婦人의 態度와 비교하여 女大生의 男兒選好는 약하고 희망자녀 規模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 희망자녀 수 속에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理由로 出産을 계속하겠다는 比率

Table 6. Percent of Responses to the Question “If you had your desired number of children, but no boys, would you try to have more children in the hope of having at least one boy?” 1974

| | Total (N.) | Yes | No | Depends | No answer |
|-------------------------------|------------|-----|-----|---------|-----------|
| <u>Age</u> | | | | | |
| —20 | 100(117) | 6% | 56% | 32% | 6% |
| 21 | 100(481) | 2 | 58 | 34 | 6 |
| 22 | 100(326) | 2 | 63 | 31 | 4 |
| 23+ | 100(48) | 4 | 58 | 36 | 2 |
| No answer | 100(5) | * | * | * | * |
| All ages | 100(977) | 3 | 59 | 33 | 5 |
| <u>The longest residence</u> | | | | | |
| Seoul | 100(646) | 3 | 60 | 32 | 5 |
| Other urban | 100(278) | 3 | 59 | 34 | 4 |
| Rural | 100(47) | — | 60 | 38 | 2 |
| <u>Number of siblings</u> | | | | | |
| 1—2 | 100(54) | 6 | 54 | 31 | 9 |
| 3 | 100(124) | 2 | 56 | 36 | 6 |
| 4 | 100(247) | 4 | 57 | 33 | 6 |
| 5 | 100(255) | 3 | 66 | 28 | 3 |
| 6 | 100(184) | — | 60 | 36 | 4 |
| 7+ | 100(113) | 4 | 58 | 33 | 5 |
| <u>Major field at college</u> | | | | | |
| Social science | 100(501) | 3 | 58 | 34 | 5 |
| Art | 100(169) | 3 | 59 | 33 | 5 |
| Natural science | 100(298) | 3 | 61 | 32 | 4 |

* = Less than 1 percent.

— = No respondents in this category.

15) 宋建鏞·金明姬, 前揭書, p. 22.

16) 宋建鏞·韓聖鉉, 前揭書, p. 46-47.

은 女大生에서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態度는 女大生の 年齡, 最長居住地, 兄弟數, 專攻分野에 따라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女大生の 希望子女數는 적고 또한 이 속에 男兒없어도 出産을 中斷하겠다는 態度가 강한 것은 이들의 子女規模가 그만큼 확고하고 男兒選好는 문제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希望子女數는 결혼후 家族을 위시한 기타 高出産의 영향이 없는한 실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6. 두 子女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우리나라에서 1971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家族計劃 標語인 “딸·아들 구별없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標語에 대한 態度를 알아보았다.

應答者의 72%는 이 標語의 意味에 대하여 贊成하였고, 5%는 反對, 20%는 贊成도 反對도 아닌 中立的 立場을 취하고 있다.

1973년 一般 未婚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查에서 贊成率은 82%, 反對12%¹⁷⁾였던 것과 비교하여 女大生の 경우 反對率은 낮으나, 贊成率도 낮다. 이러한 差異는 女大生調查에서 贊成도 反對도 아닌 中立的 立場을 취한 比率이 높은데 기인된 것으로서 設問內容이 각기 달랐다.

두 子女를 강조한 家族計劃 標語의 贊成率은 希望子女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女大生 중 두 자녀 또는 그 이하의 子女를 희망한 比率은 72%로서 이들의 大部分은 이 標語에 긍정적 反應을 나타낸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大生の 年齡別 贊成率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고, 대부분 女大生은 “두 子女”를 강조한 家族計劃 標語에 贊成하고 있다.

Table 7. Attitudes toward the Slogan “Stop-at-Two Children”, 1974

| Age | Total (N) | Approval | Disapproval | Qualified approval | Don't know |
|----------|-----------|----------|-------------|--------------------|------------|
| -20 | 100(117) | 69% | 5% | 22% | 3% |
| 21 | 100(481) | 70 | 5 | 21 | 4 |
| 22 | 100(326) | 76 | 4 | 17 | 3 |
| 23+ | 100(48) | 71 | 4 | 23 | 2 |
| Noanswer | 100(5) | * | * | * | * |
| All ages | 100(977) | 72 | 5 | 20 | 3 |

* = Not calculated because of less than 20 cases.

「避妊을 통한 家族計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79%는 贊成, 反對가 4%, 贊成도 反對도 아니다가 6%, 모르겠다가 10%였다. 1973년 未婚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查에서 贊成이 89%, 反對가 4%, 모르겠다가 7%인 것과 비교하여¹⁸⁾ 女大生の 家族計劃 贊成率은 약간 낮다. 그러나 反對率은 같고, 결국 中立的 立場에 있는 比率이 贊成率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역시 女大生과 一般女性 간 贊成率에 유의한 큰 차이는 없이 다 같이 높은 贊成率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결혼후 언제부터 피임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27%는 결

17) 前掲書, p.24.

18) 前掲書, p.34.

19) 前掲書, p.35.

혼초부터, 16%는 첫 애기 낳고, 9%는 둘째 애기 낳고, 그리고 34%는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피임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一般 未婚女性의 조사에서 결혼—둘째 애기 낳은 후 피임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女性은 59%¹⁹⁾였다. 이에 비해 女大生의 경우 52%로서 약간 낮고 오히려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피임을 시작하겠다는 比率이 높다. 女大生의 希望子女數는 적고, 결혼연령도 지연되기 때문에 결혼초기에 원하는 子女數를 속히 가진 후 斷産을 목적으로한 피임을 원한데서 이러한 態도의 차이가 생긴 것 같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年齡別로 볼 때 20세 이하의 女大生은 21세 이상과 비교하여 결혼

Table 8. Preferred Time of First Use of Contraception, 1974

| | Total (N) | From marriage | After 1st delivery | After 2nd delivery | After having children desired | Unknown |
|----------------------------------|-----------|---------------|--------------------|--------------------|-------------------------------|---------|
| <u>Age</u> | | | | | | |
| -20 | 100(202) | 31% | 22% | 6% | 28% | 12% |
| 21 | 100(301) | 24 | 17 | 10 | 37 | 12 |
| 22 | 100(284) | 24 | 14 | 10 | 36 | 16 |
| 23+ | 100(143) | 36 | 11 | 6 | 36 | 11 |
| Total | 100(930) | 27 | 16 | 9 | 34 | 14 |
| <u>Preferred age at marriage</u> | | | | | | |
| Under 24 | 100(590) | 28 | 17 | 8 | 30 | 17 |
| 25 or later | 100(371) | 26 | 16 | 9 | 40 | 9 |

초 또는 출산을 하면서 피임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21세 이상에서는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피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피임 처음 사용시기에 대한 態度는 希望結婚年齡에서도 나타난다. 24세 이하에서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女大生에 비하여 25세 이후 결혼을 희망하는 女大生에서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피임을 시작하겠다는 比率이 높다.

7. 希望 出産終結 時期

“자녀는 몇 살안에 다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83%는 30세 未滿 즉 20대에, 15%는 30~34세에 出産을 完了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女大生의 希望結婚年齡의 平均은 24.5歲이고, 希望子女數 平均은 2.3명인 것과 비교하여 늦게 결혼하여 적은 子女를 둔 후 빨리 斷産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1973년에 실시된 一般未婚女性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 理想子女數를 갖는 방법에 있어 早期 斷産을 희망하는 女性이 48%, 터를延長 希望이 44%였다.²⁰⁾

李²¹⁾ 등의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 理想的 斷産時期가 30세 이전인 比率은 63%, 31~35세에서 25%였다.

20) 宋建鏞·金明姬, 前掲書, p.36

21) 李效再·李東瓊, 前掲書, p.411.

女大生은 一般未婚女性과 비교하여 早期에 斷産하려는 態度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態度는 연속적 出産이 자신에 이롭지 못하고, 30代에 出産完了後 자신의 生活 즉 社會參與 또는 餘暇善用, 자신의 發展등을 위한 기회 확대에 대한 강한 慾求와 관련된 것 같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大生の 年齡別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30세 未滿에 出産을 종결

Table 9. Preferred Age at the Termination of Child Bearing

| | Preferred age at the termination of child bearing | | | |
|---|---|----------|-------|---------|
| | Total (N) | Under 30 | 30-34 | Unknown |
| <u>Age</u> | | | | |
| -20 | 100(117) | 80% | 19% | 1% |
| 21 | 100(481) | 83 | 15 | 2 |
| 22 | 100(326) | 85 | 15 | * |
| 23+ | 100(48) | 88 | 12 | * |
| No answer | 100(5) | * | * | * |
| All ages | 100(977) | 83 | 15 | 2 |
| <u>Number of siblings</u> | | | | |
| 1-2 | 100 (54) | 80 | 20 | * |
| 3 | 100(124) | 80 | 20 | * |
| 4 | 100(247) | 82 | 16 | 2 |
| 5 | 100(255) | 86 | 12 | 2 |
| 6 | 100(184) | 84 | 16 | * |
| 7+ | 100(113) | 85 | 14 | 1 |
| <u>Preferred age at marriage</u> | | | | |
| Under 23 | 100(202) | 94 | 6 | * |
| 24 | 100(301) | 90 | 10 | * |
| 25 | 100(284) | 81 | 8 | 2 |
| 26 or later | 100(143) | 61 | 35 | 4 |
| <u>Preferred time of 1st use of contraception</u> | | | | |
| From marriage | 100(262) | 87 | 12 | 1 |
| After 1st delivery | 100(159) | 86 | 12 | 2 |
| After 2nd delivery | 100 (84) | 82 | 18 | * |
| After having children desired | 100(328) | 82 | 18 | * |

* = Less than 1 percent.

하려는 比率이 높다. 20세 이하의 이 比率은 80%였고, 23세 이상에서 88%였다. 반대로 30~34세에서 出産을 완료하기를 希望하는 比率은 20세 이하에서 높고 (19%), 연령증가에 따라 저하여 23세 이상에서 12%였다.

早期에 斷産하기를 希望하는 比率은 응답자 자신의 兄弟數와 관련성이 있다. 兄弟姊妹數가 증가함에 따라 30세 未滿에 出産完了를 원하는 比率이 증가한다. 즉 1~2명의 형제자매를 갖는 응답자에서 30세 미만에서 出産完了를 希望하는 比率은 80%였고, 7명 이상에서 85%였다. 30~34세에서 出産完了를 希望하는 비율은 형제자매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이러한 態度는 자신이 자라는 家庭內에서 많은 형제를 갖고 늦게까지 出産을 하는 行態에 대한 反作用으로 형성된 것 같다.

希望出產 完了時期는 또한 希望結婚年齡과 관련성이 밀접하다. 비교적 일찍 즉 23세 이하에서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女大生の 94%는 30세 未滿에 出產完了를 희망하며, 그 希望年齡이 늦어짐에 따라 30세 미만에 出產完了를 希望하는 比率은 감소하여 26세 이후에는 61%로 저하한다. 이는 希望子女數의 규모는 希望結婚年齡에 따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希望結婚年齡 23세 이하 女大生の 希望子女數는 2.4명, 23세에서 2.3명, 25세에서 2.3명, 26세 이상에서 2.2명으로 希望結婚年齡에 따른 希望子女數에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結婚後 처음 피임을 희망하는 시기별 出產終結時期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일찍 피임을 시작하겠다는 女性에서 30세 未滿에 出產을 완료하겠다는 比率이 높다. 결혼초에 피임을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女性에서 出產完了 希望時期가 30세 未滿인 比率은 87%이며, 희망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시작하겠다는 女性에서 이 比率은 82%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희망결혼 연령과 희망하는 피임 처음 사용시기와 연관성이 크다,

결혼후 일찍 피임의 시작을 희망하는 女大生の 比率은 결혼 희망연령이 빠른 女性에서 비교적 높고, 희망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시작하겠다는 비율은 반대로 결혼희망연령이 늦은 女性에서 높다. 그러므로 결혼희망연령이 23세 이하와 이후로 구분하여 볼 때, 前者에서는 子女의 터울을 연장하면서 30세 미만에 出產을 完了하기를 희망하고 後者에서는 터울조절없이 희망자녀수를 갖되 그 時期는 30~34세까지 연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女大生の 希望子女의 規模는 우리나라 人口代置出產力(純再生產率 1.0의 水準)인 合計出產率 2.3²²⁾과 일치하는 적은 규모이다. 이 적은 規模의 子女는 女大生이 희망하는 결혼연령에 따라 약간 다르나 30代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歐美女性의 合理的 出產態度를 우리나라 未婚女大生에서 볼 수 있다.

8. 避妊方法의 知識

既 제시된 9가지 피임방법 (먹는약, 루우프, 월경주기법, 난관수술, 정관수술, 性交中絶法, 콘돔, 다이아후렘, 발포성錠劑 또는 제리 등) 중 한 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들었다는 避妊方法 知悉率은 應答者의 99%였다. 이 調査値는 1973년 未婚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査에서 밝혀진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未婚女性의 知悉率²³⁾과 같다.

들은 바 있는 피임방법 중 먹는 약의 知悉率은 98%, 다음은 정관수술의 90%, 루우프 87%로서 정부 가족계획 사업에 의해 보급되고 있는 피임방법의 知悉率이 높았다(表 10 參照).

그러나 가족계획 계몽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은 피임방법 중 月經週期法(86%)의 知悉率은 높았으나, 性交中絶法(52%), 다이아후렘(41%), 발포성정제 또는 제리(42%) 등의 知悉率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月經週期法과 다이아후렘은 女性避妊法으로서 先進國의 婦人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方法이지만 1973년 未婚女性을 대상으로 조사한 全女性의 月經週期法 知悉率 48%와 다이아후렘의 知悉率 12%보다 훨씬 높다.

女大生の 年齡別로 피임방법 知悉率에 큰 차이없이 모든 年齡層에서 높았다. 다만 月經週期法 性交中絶法, 다이아후렘 등의 피임방법은 年齡增加와 함께 知悉率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方法의 知悉率증가는 가족계획 계몽활동 보다는 학교교육에 노출된 기간의 차에서 생긴 것 같다.

22) Thomas Frejka, Republic of Korea, Country Prospects, The Population-Council, New York, 1974, p. 3.

23) 宋建鏞·金明姬, 前掲書, p.28.

Table 10. Percent of Respondents Having Knowledge of Contraceptive Methods by Age, 1974

| | Age | | | | All ages (N) |
|----------------------|-----|-----|-----|-----|--------------|
| | -20 | 21 | 22 | 23+ | |
| <u>Heard of</u> | | | | | |
| Oral pill | 96% | 99% | 96% | 92% | 98% (972) * |
| Loop | 75 | 90 | 89 | 86 | 87 (972) |
| Rhythm | 75 | 88 | 88 | 90 | 86 (972) |
| Tubal ligation | 72 | 82 | 79 | 78 | 80 (972) |
| Vasectomy | 82 | 93 | 89 | 88 | 90 (972) |
| Withdrawal | 37 | 54 | 54 | 64 | 52 (972) |
| Condom | 70 | 91 | 86 | 84 | 86 (972) |
| Diaphragm | 24 | 43 | 47 | 39 | 41 (972) |
| Foam tablet or jelly | 22 | 44 | 46 | 44 | 42 (972) |
| <u>Knew use of</u> | | | | | |
| Oral pill | 15 | 28 | 26 | 27 | 26 (972) |
| Loop | 9 | 16 | 19 | 17 | 16 (972) |
| Rhythm | 19 | 22 | 28 | 25 | 24 (972) |
| Tubal ligation | 8 | 14 | 18 | 15 | 15 (972) |
| Vasectomy | 8 | 16 | 21 | 17 | 17 (972) |
| Withdrawal | 7 | 10 | 13 | 6 | 10 (972) |
| Condom | 10 | 19 | 24 | 21 | 19 (972) |
| Diaphragm | 5 | 8 | 7 | 6 | 7 (972) |
| Foam tablet or jelly | 6 | 6 | 7 | 4 | 6 (972) |

* = Excludes 5 cases because of incomplete information.

9가지의 피임방법 중 들은 바 있는 方法數別 知悉率은 전혀 한가지 方法도 듣지 못한 率이 1%, 1~3가지 方法의 知悉率이 9%, 4~6가지 方法의 知悉率이 33%, 7가지 이상의 知悉率은 57%였다. 들은 바 있는 피임방법 數가 많아짐에 따라 知悉率도 증가한다. 一般 未婚女性이 피임방법을 7가지 이상 들었다는 比率은 1973년에 15%인 것과 비교하여 女大生은 많은 수의 피임방법을 이미 들었다.

그러나 피임방법 知悉率이 높는데 반하여 사용방법도 안다는 비율은 대단히 낮았다. 사용방법을 안다는 比率은 먹는 약에서 가장 높은 26%, 月經週期法 24%, 콘돔 19%, 정관수술 17%였고, 다이어아 후렘은 7%, 발포성정제는 6%에 불과하였다.

應答者의 年齡別로 알고 있는 피임방법의 比率은 20세 이하보다 21세 이상에서 약간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 피임방법별로 年齡에 따른 알고 있는 피임방법의 比率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全 應答者가 使用方法도 알고 있는 피임방법의 비율은 낮지만, 이 調査에서 사용방법을 안다는 應答은 응답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한 주관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각 피임방법별로 사용방법을 안다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조사되었다면 「사용방법도 안다」는 比率은 주관적 應答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장기간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임방법이 女大生에게 교육되지 않은데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Table 11. Percent of Women Having Contraceptive Knowledge From Various Sources, 1974

| Source of knowledge | Percents* |
|-----------------------------------|-----------|
| School | 76% |
| Newspapers or magazines | 45 |
| Poster or other printed materials | 19 |
| Friends of mother | 18 |
| Radio or TV | 15 |
| Friends | 13 |
| Family | 9 |
| Medical doctors or pharmacists | 2 |
| Other | 4 |

* = Calculated on base of 977 respondents.

表 11은 피임방법의 知悉源을 나타낸 것이다. 知悉源 중 學校教育이 가장 높은 76%, 다음은 신문 또는 잡지가 45%였다.

1973년 未婚女性을 대상으로 한 調査 結果에서 知悉源이 학교교육인 比率은 33%였고, 신문이 72%였던 것과 비교하여, 女大生の 知悉源으로서 학교교육의 비율은 未婚女性의 경우보다 높은 반면 신문·잡지의 비율은 훨씬 낮다. 學生이기 때문에 學校教育 이외 知悉源의 比率은 낮은 것이다. 포스타·각종 선전인쇄물, 라디오·T V, 등의 知悉源으로서의 比率은 일반 未婚女性 보다 女大生の 경우에서 낮았다.

그러므로 女大生에게 접근되는 知悉源은 學校教育을 제외하고 그 영향력은 미약하다. 피임방법 知悉源의 多元化 또는 學校教育의 강화가 요구된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임지식 知悉源이 하나인 比率은 49%, 2개가 28%, 3개 이상은 23%에 불과하다.

한편 결혼하기전 避妊知識要求度를 알아보았다. “결혼하기 전 지금 가지고 있는 피임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하시는지요?”에 대한 應答結果는 「더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가 63%, 「조금 더 필요하다」가 30%로서 全應答者의 93%가 결혼하기 전에 더 많은 피임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表 13 參照).

結婚前에 더 많은 피임지식이 필요하다는 比率은 女大生の 年齡別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들은 바 있는 피임방법의 數別로 볼 때 그 數의 多少와 관계없이 「피임지식이 더 필요 없다」

Table 12. Number of Channels of Knowledge about Contraceptive Methods, 1974

| Number of channels | Percent |
|--------------------|--------------|
| 1 | 49 |
| 2 | 28 |
| 3 | 14 |
| 4 | 7 |
| 5+ | 2 |
| Total (N) | 100 (954) |
| Mean | 1.96 |

Table 13. Percent of Respondents Wanting more Knowledge of Contraceptive Methods before Marriage, 1974

| | Total(N.) | Need much more | Need some more | Need any | Don't know |
|--|-----------|----------------|----------------|----------|------------|
| <u>Age</u> | | | | | |
| —20 | 100(117) | 72% | 22% | 2% | 4% |
| 21 | 100(481) | 60 | 32 | 5 | 3 |
| 22 | 100(326) | 63 | 31 | 2 | 4 |
| 23+ | 100(48) | 67 | 23 | 10 | — |
| No answer | 100(5) | * | * | * | * |
| All ages | 100(977) | 63 | 30 | 4 | 3 |
| <u>Number of contraceptive methods known</u> | | | | | |
| 1—3 | 100(90) | 79 | 18 | 3 | — |
| 4—6 | 100(318) | 73 | 19 | 4 | 4 |
| 7+ | 100(559) | 55 | 38 | 4 | 3 |
| <u>Major field at college</u> | | | | | |
| Social science | 100(501) | 63 | 32 | 4 | 1 |
| Art | 100(169) | 66 | 28 | 3 | 3 |
| Natural science | 100(298) | 61 | 30 | 6 | 3 |
| <u>Type of college</u> | | | | | |
| Womens' college | 199(785) | 61 | 32 | 4 | 3 |
| Co-educational college | 100(192) | 71 | 22 | 3 | 4 |

* = Less than 1 percent.

— = No respondents in this category.

는 비율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1~3 가지의 피임방법을 知悉한 女大生은 7가지 이상 知悉한 女大生과 비교하여, 前者에서 「더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의 비율(79%)이 後者(55%)보다 높고, 「조금 더 필요하다」는 비율은 前者에서 18%, 後者에서 38%였다.

大學의 專攻分野別로 볼 때 自然科學系列보다 社會科學系列의 學生이 「더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약간 높다.

大學이 男女共學인지 아니면 女子大學인지의 區分에 따라 역시 피임지식의 요구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男女共學인 大學의 女大生은 女子大學의 學生보다 「더욱 많은 피임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女子大學의 學生보다 높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는 비율은 女子大學의 學生 쪽이 약간 높다. 「더 필요없다」는 비율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男女共學인 大學의 女大生の 結婚前 피임지식 요구도는 女子大學의 學生보다 훨씬 강하다.

一般 未婚女性을 대상으로 조사된 1973년의 結果에 의하면, 「많은 지식이 더 필요하다」가 51%, 「조금 더 필요하다」가 28%, 「필요없다」가 15%로서 女大生の 경우보다 그 要求度가 낮다.

그러나 女大生の 피임방법 知悉率이 一般 未婚女性보다 높은 상태에서 女大生の 피임지식 요구도가 높은 것은 지금까지 들은 피임지식이 피상적이고 결혼에 있어 별 도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들은 바 있는 피임방법 수가 많을수록 보다 구체적 지식의 요구도를 증가시킨다.

9.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人工妊娠中絶은 婦人들에 의해 원하지 않은 임신의 종결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女大生에게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의 인공유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인공유산의 찬성이 57%, 반대 14%였다.

一般 未婚女性の 경우 1973년에 결혼후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人工流産을 하겠다는 比率은 49%였다.

1973년 李²⁴⁾ 등의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혼전임신의 경우 人工流産 贊成率은 男子大學生에서 44%, 女子大學生에서 45%고, 원하는 자녀수 이상의 임신인 경우 人工流産 贊成率은 男子大學生에서 43%, 女子大學生에서 44%였다.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해로운 인공유산 찬성율은 女大生에서 67%였다.

이들 調査値와 비교하여 本調査에서 얻은 人工流産 贊成率은 약간 높다. 이 差異는 設問內容이 다르므로써 생길 수 있다. 즉 一般 未婚女性の 경우는 「결혼기간의 不願妊娠」 男女大學生의 調査에서는 「구체적 여러 조건하의 不願妊娠」, 本調査에서는 「일반적 不願妊娠」이란 전체하의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가 각각 질문되었다.

그러나 本調査値와 一般 未婚女性の 人工流産 贊成率을 비교할 때 女大生이 一般 未婚女性보다 不願妊娠의 경우 人工流産에 더욱 강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子女만을 갖는다는 態度의 차에 기인된 것 같다.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應答者의 年齡別로 不願妊娠에 대한 人工流産 贊成率은 20세 이하보다 21세 이상에서 높지만 그 차는 크지 않다.

最長居住地別 贊成率은 都市보다 농촌지역 거주자에서 높고, 反對率 역시 농촌지역 장기거주자에서 높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는 농촌지역 장기거주자에서 無應答 또는 모르겠다는 比率이 적은데서 생긴 것으로 지역 간 人工流産態度의 차이 설명에는 적합치 않은 것 같다.

不願妊娠에 대한 人工流産의 贊成率은 비교적 높고 應答者의 諸特性別 즉 兄弟姊妹數, 專攻分野, 男女共學與否別로는 贊成率에 차이가 별로 없다.

Table 14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 of Unwanted Pregnancy, 1974.

| | Total (N) | Favorable | Not favorable | Don't know or no answer |
|--------------------------|-----------|-----------|---------------|-------------------------|
| Age | | | | |
| —20 | 100(117) | 43% | 22% | 35% |
| 21 | 100(481) | 57 | 12 | 31 |
| 22 | 100(326) | 63 | 15 | 22 |
| 23+ | 100(48) | 58 | 21 | 21 |
| No answer | 100(5) | * | * | * |
| All ages | 100(977) | 57 | 14 | 29 |
| Longest residence | | | | |
| Seoul | 100(646) | 57 | 14 | 29 |
| Other urban | 100(268) | 57 | 16 | 27 |
| Rural | 199(47) | 68 | 21 | 11 |

* = Less than 1 percent.

10. 要約 및 結論

1974年 9~11月 기간에 家族計劃研究院이 제공하는 1日課程의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에 참여

24) 李效再·李東瑗, 前掲書, p.42.

하기 위해 來院한 女大生 중 1,000名을 대상으로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및 知識에 대한 調査가 실시되었다.

調査는 自計式方法으로 실시되고 배부된 1,000枚의 調査票 중 利用可能했던 調査票는 977枚 (應答率 98%)였다.

主要 結果

1. 女大生の 94%는 현재의 人口增加率(2%)은 우리나라의 發展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가정의 生活水準 向上을 위해 95%의 女大生은 子女數가 적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女大生の 大部分은 이들 두 人口問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平均 希望結婚年齡은 24.5세로서 1970~73년 大學教育을 받은 女性의 初婚年齡 24.3세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3. 平均 希望子女數는 2.3명, 平均 希望男兒數는 1.3명이었다. 子女數 2名 이하를 희망하는 比率은 전여대생의 72%였다.

1973년 15~44歲의 大學教育을 받은 有配偶婦人의 期待子女數 2.7名과 비교하여 女大生の 希望子女規模는 약간 적다.

4. 첫 아기가 男兒이기를 바라는 比率은 47%였고, 希望子女數를 가진 후 만일에 이속에 1名의 男兒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들을 얻기 위해 出産을 계속하겠다는 比率은 3%에 불과하였다.

女大生の 希望子女規模는 적고, 男兒選好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두 子女를 갖자는 家族計劃 標語에 72%가 贊成하고, 家族計劃에 대하여 79%가 贊成하고 있다. 「두 子女」 標語 및 家族計劃 反對率은 극히 낮았다.

6. 應答者의 83%는 20代에 出産을 完了하기를 바라고, 15%는 30~34歲에 斷産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7. 避妊方法의 知悉率은 높았다(99%). 方法別 知悉率은 먹는약 98%, 정관수술 90%, 루우프 87%, 月經週期法 86%, 콘돔 86%, 性交中絶法 52%, 다이아후렘 41%, 제리 및 발포성정제 42%였다.

높은 知悉率에 비하여 使用方法을 알고 있는 比率은 낮았다. 全應答者의 26%는 먹는약, 24%는 月經週期法, 19%는 콘돔의 사용방법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각 피임방법의 知悉源 중 학교교육이 76%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문·잡지가 45%, 포스타·기타 인쇄물이 19%였다.

8. 結婚前에 보다 많은 避妊知識이 필요하다는 比率은 93%였고, 이 要求度는 들은 바 있는 피임방법의 數와는 관계없이 다 같이 높았다.

9. 결혼后 원하지 않는 妊娠의 人工妊娠中絶에 대하여 57%는 긍정적인 反應(贊成)을 나타내고 있다.

結 論

1. 女大生の 希望子女規模, 結婚, 出産完了時期 등에 대한 態度는 어느 다른 女性集團보다 近代化했고, 이들의 態度가 實現될 장애가 없다면 앞으로 出産力도 더욱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合理的 態度形成에 비추어 이 態度의 實現에 요구되는 避妊知識을 갖고 있는 比率은 낮았고, 동시에 결혼前에 보다 많은 피임지식을 가져야겠다는 知識要求度는 높았다.

3. 學校教育은 旣形成된 바람직한 出産 및 子女에 對한 態度를 합리적으로 實現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 피임지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ttitudes of Women College Students in Seoul towards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y Kun Yong Song*

The Data

The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has given one-day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training for all women college students in Seoul since September 1974.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ho trained at the KIFP during the period September-November 1974. Before opening the training course, a (self-response) questionnaire was given to each student and then all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response rate was 98 percent. (977 questionnaires were available for the study among 1,000 distributed to the students.)

Main Findings

(1) Ninety-four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urrent population increase rate (2 percent annually) should be greatly reduced to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and 95 percent replied that the family size should be greatly reduced for the improvement of family living level.

(2) Mean desired age at marriage was 24.5 years, which was similar to the actual age at marriage (24.3 years) of the college-educated women married 1970-73.

(3) Mean preferred number of children was 2.3 including 1.3 sons, which was less than the expected number of children (2.7 children; living children plus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desired) for college-educated married women in 1973. Th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two or fewer children desired was 72 percent.

(4) Eighty-three percent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terminate child-bearing before 30 years of age and 15 percent between the ages of 30 and 34.

(5) Almost all of the respondents (99 percent) had heard of at least one contraceptive method, but the proportion knowing how to use the method was very low; 26 percent for the oral pill, 24 percent for rhythm, and 19 percent for the condom. School education was the media for contraceptive information for 76 percent of the respondents; newspapers and magazines, 45 percent; and posters and other printed materials, 19 percent.

* Chief of Research Section II, KIFP

(6) Ninety-three percent of the respondent wanted much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ontraceptive methods before their marriage.

Conclusions

(1) Attitudes towards family size,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are much more modernized than those of unmarried women in general. If there are no pro-fertility influences within married life, much lower fertility in the college-educated women can be expected in the future.

(2) However, there are many weaknesses in successfully achieving their small preferred family size. A majority of the students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contraceptive methods to regulate their family size at the proper time. School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problem areas.